

#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

정희모\* · 김성희\*\*

## < 차례 >

- I. 서론
- II. 이론적 도구
- III. 연구 방법
- IV. 실험 연구의 결과
- V. 결론

## I. 서론

글쓰기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미숙한 필자들을 능숙한 필자로 이끌 방법이다. 능숙한 필자들은 어떤 주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글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미숙한 필자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글쓰기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텍스트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텍스트를 가지고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를 가려낸다.

하나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주제, 화제, 주장, 근거와 같은 내용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단락, 문장, 어휘와 같은 형식적 요소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눈에 띄는 요소보다 눈에 안 띄는 의미 요소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주저자)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공동저자)

들이 더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장 요소의 미묘한 결합, 의미 결합의 복잡성, 의미 진행의 일관성 등 의미 생산과 관련된 텍스트의 다양한 맥락들은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텍스트가 지니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의 텍스트를 분별할 방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 동안 텍스트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방식들이 여러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Brinker(1992), Beaugrade & Dressler(1981), van Dijk(1980), Halliday & Hasan(1976), Mathesius(1928), Firbas(1964), Witte(1983) 등이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한 학자이다. 이들은 각자 문법규칙과 관련된 응집성 요소로부터 의미와 연관된 테마와 레마, 화제, 초구조까지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를 연구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공시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어서 직접 글쓰기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란 어렵다. 더구나 실제 교육 현장에 직면하여 학생들의 텍스트를 설명하는 데 맞지 않는 점이 많았다.

이런 이유의 하나로 어떤 이론 하나로 텍스트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Halliday & Hasan(1976)은 응집성을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 관계”로 지칭하고, 두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응집단위를 “응집성 지표(cohesive ties)”라고 불렀다. 이들은 응집성 지표(cohesive ties) 개념을 통하여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고, 텍스트의 짜임새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1)</sup> 그러나 응집성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맥락이나 내용 요소, 주제 요소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텍스트의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런 요소들은 텍스트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텍스트를 둘러싼 언어체계, 장르, 주제, 배경 등에 따라 응집성 지표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그 기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Halliday & Hasan은 이들 요소를 통해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이런 이론을 적용할 뚜렷한 교육

1) Halliday &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pp.4-6.

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텍스트는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규명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가능한 방법은 텍스트의 여러 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이론을 교육적 방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 연구 외에 실험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텍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모아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몇몇 이론적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우수한 글과 미숙한 글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의 텍스트에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t-unit, 담화 화제, 문장 화제, 문장 화제 구조, 응집성 지표 등이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과제 부여 상황에서 텍스트의 어떤 요소들이 우수성의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여러 도구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특히 중요한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문장 화제와 문장 화제 구조이다. 문장 화제와 문장 화제 구조는 프라그 학파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 국내에도 텍스트이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특히 Stephen Witte(1983)는 Mathesius, Daneš, Lautamatti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 화제와 문장 화제 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sup>2)</sup> 문장 화제와 문장 화제 구조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쓴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을 구조화하여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Witte의 연구 방법을 기본적으로 응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Witte(1983)는 학생들의 수정(Revision) 상황과 수정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이론적 도구들을 사용했다. 반면에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 결과로 나타난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이론적 도구들을 사용한다. 또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문장 화제와 문장 화제 구조 외에 응집성 지표 지수와 비규범

2) Stephen Witte(1983), Topical Structure and Revision : An Exploratory Stud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4, No. 3.

적 문장 지수도 함께 사용한다. 텍스트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텍스트를 훨씬 잘 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도구

### 1. t-unit

영미권의 학자들은 텍스트를 규정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언어학적 규범과 달리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무엇으로 규정할까 하는 점이었다. 언어학에서 말하듯 텍스트를 단어의 집합, 혹은 문장의 연속체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문장이 연결되어 커진 것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다. 텍스트에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 혹은 문장의 집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텍스트학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 Halliday와 Hasan(1976)은 텍스트를 형식의 단위가 아닌 의미의 단위로 볼 것을 제안했다. 텍스트는 문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문장에 의해 재현되는 어떤 상징체이다. 다시 말해 어휘나 문장의 문법적 단위나 의미 단위에서 얻은 것을 텍스트 단위에서 반복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Halliday와 Hasan은 “어떤 문장이나 구절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구조적 완성체를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게 찾게 되리라는 바람을 버려야 하며, 텍스트의 통일성은 다른 종류의 통일성”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sup> Halliday와 Hasan은 문법적 단위로 텍스트를 재단해서는 안 되며, 텍스트의 전체 구조를 반영한 의미 단위로 텍스트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Halliday & Hasan(1976), *Cobesion in English*, Longman, p.2.

이런 맥락에서 Hunt(1965)는 학생들의 문법적 구조를 연구한 한 논문에서 문장 대신에 의미의 최소단위로서 T-unit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sup>4)</sup> 이 연구는 원래 4학년, 8학년, 12학년 학생들의 글을 대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문장 쓰기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분석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힌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와 절의 길이, 종속절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장이나 절의 길이만으로는 문장의 성숙도를 완전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텍스트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검증 단위가 필요했다.<sup>5)</sup>

Hunt는 문장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 자신이 고안한 t-unit을 내세웠다. t-unit이란 의미를 이루는 최소 단위이며, 통상 영어에서는 종속절을 포함한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난다. 종속절이 아닌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의 경우, 각각의 절이 곧 t-unit가 된다. 한국어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① 그는 다섯 시간 동안이나 달렸다.
- ② 나는 밥을 먹고, 영희는 차를 마셨다.
- ③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①은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 문장은 하나의 t-unit를 형성한다. ②는 2개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여기에는 “나는 밥을 먹었다”와 “영희는 차를 마셨다”라는 2개의 t-unit가 포함되어 있다. ③은 “의사가 되는”이라는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다시 말해, 2개의 절로 구성된 문장이다. 하지만 이 문장의 t-unit는 1개이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주어는 “그의 꿈”으로, “의사가 되는 것이다”란 서술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4) Kellogg W. Hunt(1965), *Grammatical Structures Written at Three Grade Levels*, Champaign, IL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5) 한국어에서는 문장과 절의 길이, 종속절의 비율, t-unit의 길이 등이 문장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는 이유는 문장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텍스트의 화제구조를 분석해내기 위해서이다.

서 이 문장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봐야 한다.

이 개념의 창안자 Hunt의 설명에 따르면, t-unit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구두점으로 끝나는 부분, 그리고 문장 조각(fragment)을 남기지 않고 나누어지는 부분까지라고 한다.<sup>6)</sup> 예컨대 ‘I said she was pretty’라는 문장의 경우 종속절인 ‘she was pretty’를 하나의 t-unit로 설정할 경우, ‘I said’라는 목적어 없는 깨진 문장이 남는다. 그래서 종속절을 별도의 t-unit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는 ~을 말했다(I said)’를 하나의 의미단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사실을 말했다’가 하나의 의미단위가 된다.

t-unit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텍스트를 의미단위로 쪼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학생 글의 문장 화제들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Hunt 이후의 글쓰기 연구자들은 t-unit을 활용해 텍스트의 내용 구조를 밝히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예컨대 Ellen W. Nold와 Brent E. Davis는 문장 대신 t-unit를 분석의 단위로 삼아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담화 행렬(The Discourse Matrix)」이라는 논문에서 Nold와 Davis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방향을 A로,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B로, 또한 포괄하며 이어지는 방향을 C로 상정하고 이 세 가지 벡터량을 분석하려고 했다. 이들은 이 세 가지 벡터량이 만드는 삼차원 도형을 담화 행렬(Discourse Matrix)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텍스트 안의 의미 연결을 수학적으로 분석해내려는 시도였다.<sup>7)</sup>

## 2. 화제(topic), 화제 구조(Topical Structure)

화제(topic)란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을 말한다. ‘나는

6) 유재임(2005), 「문장합성연습이 영작문의 문장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T-uni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61-65.

7) Ellen W. Nold and Brent E. Davis, “The Discourse Matrix”,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1 (1980), pp.141-152.

책을 보았다'란 문장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 화제가 된다. 영어에서 화제는 주로 주어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텍스트 연구에서 화제를 도입한 것은 전체 텍스트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어떤 텍스트가 여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이 여섯 개의 문장에서 화제가 모두 다르다면 이는 매우 복잡한, 어쩌면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텍스트가 될지 모른다. 반대로 텍스트에서 문장 화제가 너무 적으면 텍스트의 의미는 단순해진다. 화제 개념은 텍스트의 의미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측정 단위이다.

텍스트 연구에서 화제(topic) 개념을 시도한 것은 프라그마학파의 학자들이다. Mathesius(1928)는 모든 문장은 테마(theme), 레마(theme)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테마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테마는 주로 발화의 시점에 나타난다. 반면에 레마는 테마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담화의 주요 목적이 되는 부분이자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영어에서는 주로 주어 이하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Mathesius의 관점을 Firbas(1964)는 다르게 해석한다. Mathesius는 테마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설명했지만, Firbas는 의사소통 역동성(communicative dynamism)이 가장 낮은 것으로 설명한다. Firbas의 관점에서 본다면 테마는 주어로서 더 이상 의사소통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레마는 테마 보다는 의사소통 역동성이 높다. Firbas에 의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의사소통 역동성이 낮고, 새로운 정보는 의사소통 역동성이 높는데, 여기에서 의사소통 역동성이 가장 높은 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이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영어 문장에서는 의사소통 역동성이 낮은 것이 앞에 오고, 의사소통 역동성이 높은 것이 뒤에 오게 된다. 예컨대 "In order to writing a essay, he went to the library"에서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앞의 정보는 의사소통 역동성이 낮으며, '도서관에 갔다'는 뒤의 정보는 의사소통 역동성이 높다. 만약 "he went to the library in order to writing a essay"라고 쓴다면 앞과 반대의 관점으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가 중요

한 관점이 된다.<sup>8)</sup>

우리말의 경우에도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제가 존재한다. ‘나는 책을 보았다’, ‘그 영화가 참 재미있었다.’의 경우 ‘나’와 ‘그 영화’는 바로 테마(theme), 즉 화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어와 다른 점도 있다. 우리말의 경우 화제가 주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어떤 영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이번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꼭 최우수작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화제는 ‘그 영화’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영화는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는 영화제에서 최우수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Frances Christensen(1965)은 모든 단락(paragraph)들 안에는 항상 화제 문장(topic sentence)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화제 문장을 중심으로 단락 안의 나머지 문장들은 대등하게 연결(coordinate)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된다(subordinate)는 것이 Christensen이 말하는 단락의 구성 법칙이었다.<sup>9)</sup> 여기에 덧붙여 David H. Karrfalt(1966)는 단락 안에는 화제 문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포괄하는(superordinate) 다양한 문장도 있다고 말해, 하나의 문장 화제 개념이 전체 텍스트 화제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10)</sup>

글쓰기 연구에서 화제와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대로 Witte(1983)이다. Witte는 학생들에게 실험 문장을 수정하도록 한 이후 그 텍스트를 분석했다. 앞서 말한 대로 텍스트 분량에 비해 화제가 많으면 의미가 복잡한 글이 되고, 적으면 단순한 글이 된다. 특히 그는 화제가 진행되는 구조(화제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의미의 복잡성을 실험한 바

- 
- 8) 마경일(2001), 「정보구조에서의 주제의 기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7쪽.  
김영화(1989), 「프라그마의 언어 이론=주제, 초주제, 주어 및 문단 구성에 대하여」, 『영어영문학』 제35권 2호, 315-320쪽. 영어 인용은 김경화의 논문에 나오는 예문을 변형하여 사용함.
- 9) Frances Christensen, “A Generative Rhetoric of the Paragraph”,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16 (1965), pp.144-156.
- 10) David H. Karrfalt, “Generation of paragraphs and Larger Unit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17 (1966), pp.82-87.

있다. 이런 방법은 Lautamatti의 이론을 실험에 적용한 것인데, 텍스트의 복잡성을 인지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의 복잡성을 살펴볼 것이다.

화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① 라투어와 올가는 『실험실 생활 : 과학적 사실의 사회적 구성』에서 과학자들의 실천 가운데에서 그때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글쓰기’ 활동에 주목했다.

② 라투어와 올가는 솔크 연구소라는 미국의 유명한 분자생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실험실 생활을 관찰했는데, ③ 그 결과 글쓰기가 과학자들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④ 라투어와 올가에 따르면 분자생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읽은 논문을 요약하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며, 논문을 쓰거나 고친다. ⑤ 그 과정을 통해 분자생물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문서를 생산한다.

⑥ 라투어는 뒤에 그의 저서 『작동 중인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써낸 ‘문서’가 곧 그들이 힘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수단임을 지적했다. ⑦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그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만 ⑧ 그것이 기록된 문자는 현장에서 실험실로, 이 실험실에서 저 실험실로, 또 실험실에서 정치가나 관료의 책상 위로 옮겨 다닐 수 있다. ⑨ 과학자들은 글을 쓰고 공표함으로써 새로운 지지자와 동맹자를 얻고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기회를 얻는다.<sup>11)</sup>

위의 지문은 국내 글쓰기 책에 있는 「실험실 생활과 과학자의 글쓰기」라는 글이다. 이 텍스트는 모두 9개의 t-unit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장에서 문장 화제는 밑줄을 그은 부분이다. 이를 합하면 이 텍스트는 모두 4개의 화제, 즉 “라투어와 올가”, “글쓰기(문자)”, “분자생물학자(과학자)”, “두뇌 속의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의 문장에서 4개의 화제는 의미의 복잡성에 있어 이 텍스트가 아주 복잡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는 적절한 수준임을 알려준다.

11) 신형기·정희모·김성수 외(2006),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글쓰기』, 사이언스북스, 20쪽.



다. 반면에 순차적 진행은 앞말을 이어 뒷말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진행 속도는 빠르지만 차분한 내용 설명은 부족해진다. 확장된 병렬적 화제 진행은 앞에서 했던 중요한 내용을 뒤에서 재차 강조하기에 적당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화제 구조를 분석하면 텍스트가 지닌 의미의 복잡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텍스트는 4개의 화제를 가지고 있으며, 화제의 깊이는 4단계에 걸쳐있다. 다른 텍스트의 화제구조와 비교해 보면 이 텍스트의 복잡성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화제나 화제구조는 학생들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좋은 하나의 분석 도구이다.

### 3. 응집성 지표(cohesive ties)

응집성은 담론 내에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 의미적으로 연관되거나 예상될 때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텍스트는 의미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응집성 지표(cohesive ties)이다. Halliday & Hasan은 어떤 한 담화를 해석할 때 어떤 것에 의지하여 서로의 의미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상하는 것과 예상되는 것 사이의 응집 관계를 연결고리(ties)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런 연결 유형을 분석하거나 빈도수를 조사하여 글쓰기에 있어 문장이나 문단이 가진 응집 체계의 차이, 필자마다 상이한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2)</sup> 이처럼 응집성 지표는 텍스트의 특징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Halliday & Hasan이 규정한 다섯 개의 응집성 연결고리를 분석도구로 사용한다. 이 다섯 가지는 지시(reference), 대체(substitution), 삭제(ellipsis), 접속사(conjunction), 어휘적 응집성(lexical cohe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시(reference) 관계를 나타내는 응집성 연결고리로 대명사, 지시사와 정관

12) Halliday & Hasan(1976), op. cit. p.4.

사, 비교급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집에 계셨다. 그는 신문을 보았다’의 경우, ‘그’가 응집성 지표가 된다. ‘철수는 입장권을 얻기 위해 빨리 달렸다. 그러나 철수가 더 빨랐다’도 비교급에서 응집성 연결고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체(substitution)는 하나의 요소를 인칭 대명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요트를 본 적 있다’. 응, 어제 그림에서 멋진 것을 본 적 있어’라고 말할 때 ‘멋진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삭제(ellipsis)는 문장 연결에서 단어, 구, 절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접속사(conjunction)는 우리말의 경우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순접이나 역접, 인과 접속 부사 등 모두 이에 해당한다. 어휘적 응집성(lexical cohesion)은 문장을 연결시키면서 유사한 어휘나 상위항목의 어휘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sup>13)</sup>

Witte와 Faigley(1981)는 실험연구를 통해 응집성 지표가 담화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10명의 학생을 평가하여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의 텍스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상위 집단의 학생들의 텍스트가 응집성 지표의 사용 빈도수가 하위 집단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았다. t-unit 한 개당 등장하는 응집성 지표의 수도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높았다. 응집성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도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더 나왔다고 한다. 더구나 Witte와 Faigley는 훌륭한 작가일수록 t-unit를 연결시키기 위해 접속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4)</sup> 이렇게 본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 응집성 지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좋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물론 한국어의 경우에도 문장의 응집성은 중요하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의미적으로 결속될 때 텍스트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빈번한 접속 부사나 지시 대명사의 사용이 글의 명확성과 독해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응집성 지표를

13) Witte & Faigley(1981), *Coherence, Cohesion, and Writing Qualit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2, No. 2. pp.189-192.

14) Witte & Faigley(1981), *Ibid*, pp.195-186

하나의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능숙한 필자의 글과 미숙한 필자의 글에서 응집성 지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논문의 한 목표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실험 자료와 평가 절차

먼저 학생들의 텍스트에서 응집성 지표와 문장 화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텍스트를 분석하기로 했다. 실험 텍스트 선정은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의 글쓰기 진단고사를 이용하였다.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은 3월에 글쓰기 수준별 수업을 위하여 진단고사를 실시한다. 이 진단고사 시험 답안지 중 동일 계열의 학생 답안지 53명분을 임의로 표집했다.

진단 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고사는 일정한 제시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제시문의 내용은 유종호의 산문 「집단적 기억상실을 넘어서」(『내 마음의 땅명지』, 문학동네, 2004)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과거의 역사를 자의적인 상상력에 의거해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행위와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상실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과 망각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보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당한 기억에 기초한 ‘과거 바라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p>15)</sup>

답안 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9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했는데, 먼저 이 글을 300자 이내로 요약해

15) 연세대학교, 2008학년도 <글쓰기> 진단평가 문제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2008. 3.

야 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700자 이내의 글을 써야 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왜곡 혹은 망각의 사례를 들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실험 텍스트로는 첫 번째 요약 문제가 아닌, 두 번째 서술 문제만으로 한정했다. 필자들은 이렇게 작성된 학생들의 텍스트를 수거하여 3달간 보관하였다가 각각의 이름을 지우고 일련번호를 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다른 시간을 이용해 3명의 평가자에게 전달하였다. 평가자 중 2명은 글쓰기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였고, 나머지 1명은 국어학 전공자였다. 이들 모두는 학부대학에서 일학년 글쓰기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다. 이들 평가자들은 텍스트를 읽고 총체적 평가를 먼저 하고, 1분 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분석적 평가를 했다. 이들의 채점 결과는 모두 7원 평가표(A<sup>+</sup>, A<sup>0</sup>, A<sup>-</sup>, B<sup>+</sup>, B<sup>0</sup>, B<sup>-</sup>, C)에 의해 계량화되었다. 평가자들이 사용한 분석적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주 제 | 주제가 참신한가?              |  |
|     | 주제가 적절한가?              |  |
| 내 용 | 내용이 풍부한가?              |  |
|     | 내용 전개에 통일성이 있는가?       |  |
|     | 내용 전개에 일관성이 있는가?       |  |
| 구 성 | 단락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었는가?      |  |
| 단 락 | 문장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었는가?      |  |
|     |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 문제가 없는가?   |  |
| 문 장 | 비문, 긴 문장, 번역투 문장이 있는가? |  |
|     |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 있는가?      |  |

평가자들에게는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서로 관련시키지 말고

록 부탁했다. 분석적 평가 지표는 주제와 내용 및 단락과 문장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 연구의 주요 평가지표는 총체적 평가 점수를 사용한다. 분석적 평가는 총체적 평가의 하위 단위로서 실험연구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자간의 총체적 평가 점수에 관한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표 2> 평가자간 신뢰도 분석결과

| Cronbach의 알파 |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 항목 수 |
|--------------|--|------|
| 0.8735       | 0.8743                                       | 3    |

Cronbach의 알파 계수가 .8735임을 볼 때 평가자간 신뢰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는 평가지표에 있어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자간 신뢰도를 높이기가 매우 힘들다. 평가자간 평가지표가 다를 수 있고,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 지표와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 논문에서는 평가자들의 분석적 평가 지표를 통계 자료로 쓰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우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었지만 한 평가자가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총체적 평가 점수에 따라 분석적 평가 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계 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총체적 평가 점수와 텍스트 지표를 분석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분석 목표와 분석 지표

이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실험 연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총체적 평가 점수와 텍스트 지표와의 상관관계
- 2) 총체적 점수에 의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사이의 텍스트 평가 지표 비교 분석

이 연구에서 다루는 첫 번째 과제는 텍스트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균 점수와 텍스트 분석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텍스트에 대해 평가자들이 내린 점수와 그 텍스트의 특정한 요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관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과 달라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sup>16)</sup>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살펴볼 수 있다. 평가 점수가 높아지면 어떤 요소도 따라서 같이 높아진다면 그 평가점수와 특정 요소에 대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문장 화제 수도 높아진다면 평가 점수와 문장 화제 수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텍스트 평가 점수를 상위 30%, 하위 30%를 구분하여 이 두 그룹의 텍스트 지표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두 그룹의 텍스트 지표를 비교해보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텍스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들이 어떤 요소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나아가 글쓰기 교육의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중심은 바로 이 두 번째 과제이다.

16) 이 연구에서는 원래 평가 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텍스트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란 한 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의 종속 변수를 결정하는데 어떤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말하는데, 이 값이 있으면 다중회귀분석은 유의미한 값을 얻기 힘들어진다. 작문의 텍스트 요소는 다중공선성이 높다. 각 요소 사이에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긴 문장이 많으면 비문이 많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관성을 말한다. 처음 필자들은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했으나 다중공선성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별 요소의 상관성만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근희(200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415-427쪽.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우선 학생들이 작성한 각각의 텍스트에 있는 문장 수, t-unit 수, 화제 수, 응집성 지표의 수, 단어 수, 비문 수를 모두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 요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들은 평가자의 평균 점수와 텍스트 특징의 관련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X1 : t-unit 수
- X2 : 문장 화제 수
- X3 : 어휘 수 / t-unit 수
- X4 : 병렬적 화제 진행 수
- X5 : 순차적 화제 진행 수
- X6 : 확장된 병렬적 화제 진행 수
- X7 : 응집성 지표 수
- X8 : 비문 수 / 전체 문장 수
- X9 : t-unit 수 / 화제 수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X1은 전체 텍스트에서 t-unit, 즉 <의미를 이루는 최소 문장>이 몇 개나 있는가를 살펴본 지표이다. t-unit 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의미단위가 많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텍스트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unit는 다른 지표를 분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X2는 문장 화제 수로써 전체 텍스트에 문장 화제가 몇 개나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동일한 분량의 텍스트라면 문장 화제가 많은 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복잡하다는 징표를, 문장 화제가 적은 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단순하다는 징표가 된다. 문장 화제는 많거나, 적은 것보다 적절한 것이 좋다. X3는 전체 t-unit 수 대 단어 수이다. 하나의 t-unit에 단어 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의 테마를 설명하는 레마가 길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장 화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X4와 X5, X6는 병렬적 화제 진행 수, 순차적 화제 진행 수 및 확장된

병렬적 화제 진행 수이다. 이 항목은 텍스트가 어떤 화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이다. 이것은 문장 화제 수와 더불어 텍스트의 의미 구조와 의미 복잡성을 나타내주는 주요 지표이다.

X7은 응집성 지표의 수를 의미한다. 응집성 지표는 문장과 문장이 의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표이다. X8은 전체 문장에서 비문이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국어 글쓰기 교육의 경우 비문이 많고 적음은 주요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X9는 화제 수에 대한 의미단위(t-unit) 수를 의미한다. 하나의 화제에 t-unit 수가 많으면 그 화제를 풍부하게 설명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점수와 텍스트를 분석한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이런 지표를 이용하여 상위 평가 점수를 받은 학생들과 하위 평가점수를 받은 학생들 사이에 텍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검토해 본다.

#### IV. 실험 연구의 결과

위의 실험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우리 필자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추출해내려고 했다. 이러한 방법은 Stephen Witte가 고안해낸 것이었다. 우리는 여러 표본을 두 그룹으로 분리하고 추출하여 그 각각을 비교 분석하는 그의 방법을 참고하여 총 53명의 학생이 쓴 글을 고득점에서 저득점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중 상위 14명과 하위 15명을 다시 뽑아내어 이들 두 그룹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비교하였다. 총점이라는 종속변수와 각각의 독립변수는 앞에서 행한 분석과 동일한 것이었다.

## 1. 독립 변수 X3과 X9(어휘 수/t-unit 수와 t-unit 수/화제 수)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고득점자가 저득점자보다 더 많은 t-unit를 쓴다거나 더 적은 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t-unit이나 화제의 수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X3 지표, 즉 각 t-unit 당 어휘 수에서는 양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즉, 고득점 그룹이 쓴 t-unit가 상대 집단의 것보다 더 길고 복잡했던 것이다. 원래 영어에서는 통사론적으로 복잡한 글이 더 세련된 글이라는 전통적인 공감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문장 조합하기(sentence combining)와 같은 방법이 영어 쓰기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 글쓰기에서도 통사론적인 복잡성이 평가의 강력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발견이었다.

사실 처음에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Witte가 행한 실험과 우리의 실험을 다른 결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어에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명쾌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 더 좋은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의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고득점 그룹의 X3(어휘의 수/t-unit의 수)의 평균은 17.33이었다. 반면, 저득점 그룹은 14.30이라는 낮은 수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2.539, p<.05$ ). 즉, t-unit 안의 어휘 수가 평가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는 하나의 의미 단위, 즉 t-unit 안에 어휘가 많은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t-unit이 긴 것, 즉 설명이 많은 것이 일단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 된다.

&lt;표 3&gt;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차이 비교

| 구분                | 수준 | 사례 수 | 평균    | 표준편차 | 자유도 | t       |
|-------------------|----|------|-------|------|-----|---------|
| t-unit 수(X1)      | 상  | 14   | 14.21 | 2.22 | 27  | -.358   |
|                   | 하  | 15   | 14.80 | 5.72 |     |         |
| 화제 수(X2)          | 상  | 14   | 4.79  | 1.89 | 27  | -1.912* |
|                   | 하  | 15   | 6.27  | 2.25 |     |         |
| 어휘 수/t-unit 수(X3) | 상  | 14   | 17.33 | 4.02 | 27  | 2.539** |
|                   | 하  | 15   | 14.30 | 2.19 |     |         |
| 병렬적 구조(X4)        | 상  | 14   | .53   | .16  | 27  | 1.539   |
|                   | 하  | 15   | .44   | .15  |     |         |
| 순차적 구조(X5)        | 상  | 14   | .42   | .15  | 27  | -.874   |
|                   | 하  | 15   | .47   | .16  |     |         |
| 확장된 병렬적 구조(X6)    | 상  | 14   | .16   | .08  | 27  | -1.126  |
|                   | 하  | 15   | .20   | .11  |     |         |
| 응집성 지표의 수(X7)     | 상  | 14   | 15.36 | 4.77 | 27  | 1.016   |
|                   | 하  | 15   | 13.87 | 3.00 |     |         |
| 비문 수(X8)          | 상  | 14   | .15   | .09  | 27  | -1.498  |
|                   | 하  | 15   | .23   | .16  |     |         |
| t-unit 수/화제 수(X9) | 상  | 14   | 3.51  | 1.73 | 27  | 2.194** |
|                   | 하  | 15   | 2.40  | .90  |     |         |

\* p&lt;.10, \*\* p&lt;.05

우리는 이 결과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독립변수 X9(t-unit 수/ 화제 수)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다. X9는 하나의 화제를 꾸며주는 t-unit의 평균 수(t-unit의 수/ 화제의 수)이다. 상위집단의 경우, <t-unit의 수/ 화제의 수>가 3.5121이었던 데 반해,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2.4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194$ ,  $p<.05$ ).

이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한 화제를 설명하는 t-unit의 수가 많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으로, 화제를 그만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

해 주었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화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평가자가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실험 대상의 텍스트가 과제 제시형의 서술 답안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평가자들은 논제가 요구하는 답을 충실하게 서술하는 학생에게 좋은 평가를 준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학생들의 텍스트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X3(어휘의 수/t-unit의 수)과 X9(t-unit 수/ 화제 수)라는 이 두 변수가 텍스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① 요즘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② 그 중에서도 특히 승례문 방화사건은 전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③ 승례문에 불 지른 방화범이 물론 책임은 크겠지만 ④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도 매우 크다. ⑤ 과거의 사건에 대한 망각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평가자들은 53명의 학생들이 쓴 글에 1부터 53까지의 일련번호를 달았다. 이렇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바탕으로 우리는 잘 쓴 글과 잘 쓰지 못한 글의 샘플을 확보했다. 위의 글은 그 중 8번 학생 글의 일부로, 이 텍스트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령 53명 전체 학생의 X3(어휘의 수/t-unit의 수)값 평균은 15.25, 표준편차는 3.46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의 t-unit를 쓰기 위해 15개 남짓한 어휘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8번 학생의 경우, X3(어휘의 수/t-unit의 수)의 값은 12.7이었다.

한편 전체 53명 학생의 텍스트 평균 X9(t-unit 수/ 화제 수)값은 2.89,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0.82였다. 하지만 8번 학생의 X9(t-unit 수/ 화제 수)값은 1.67이었다. 총 6개의 화제를 서술하기 위해 단 10개의 t-unit만을 사용한 것이다. 화제에 비해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증거이다. 이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번의 X3(어휘의 수 / t-unit의 수) = 12.7(평균 : 15.25, 표준편차 : 3.46)

8번의 X9(t-unit 수 / 화제 수) = 1.67(평균 : 2.89, 표준편차 : 0.82)

8번 학생의 글은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예증해준다. 이 글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우리는 우선 이 글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화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이 글의 문장 화제를 나열해보면, “우리나라”, “송례문 방화사건”, “방화범”, “당국의 책임”, “과거의 사건에 대한 망각” 등으로 어느 하나 서로 동일한 것이 없다. 이런 경우 내용도 충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의 복잡성도 심해진다.

<표 4> 8번 학생 텍스트의 화제구조 분석

| 문장<br>번호 | 화제깊이depth |          |     |              | 화제<br>번호 |
|----------|-----------|----------|-----|--------------|----------|
|          | 1         | 2        | 3   | 4            |          |
| ①        | 우리나라      |          |     |              | 1        |
| ②        |           | 송례문 방화사건 |     |              | 2        |
| ③        |           |          | 방화범 |              | 3        |
| ④        |           |          |     | 과거 사건에 대한 망각 | 4        |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다. 이 실험의 경우,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하나의 t-unit 안에 묶어낼 수 있었는가 고득점과 저득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또한 하나의 테마를 얼마나 많은 t-unit를 동원하여 충실하게 설명하였는지도 평가를 좌우하는 요소로 가능했다. 테

마(theme)와 레마(rheme)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레마의 양이 텍스트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 화제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假定)과 일치한다.

사실 하나의 테마 아래 다량의 레마를 묶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레마는 특유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텍스트의 정지된 의미를 흔드는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이다. 그래서 레마를 테마의 울타리 안으로 가두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텍스트를 정지된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생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책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은 레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는 이들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실험에서 도출해낸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의 X3(어휘의 수/ t-unit의 수), X9(t-unit 수/ 화제 수) 값에서 수치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 2. 독립 변수 X7과 X8(응집성 지표 수와 비문 수/ 전체 문장 수)

독립변수 X7은 응집성 지표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위그룹 학생들이 쓴 텍스트의 평균 X7(응집성 지표 수)은 15.3571로 하위그룹 학생들의 13.8667보다 크기는 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t=1.016$ ,  $p>.05$ ). 즉, 응집성 지표의 수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는 말이다. 다음의 글을 보자.

이런 재난들이 터지면 언론들은 앞 다퉈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무관심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들춰낸다. 그리고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까지 설정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신문의 1면을 장식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사건들은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 당사자의 개인적 고통이 사회적 고통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사회적 고통이 없으니 그 고통을 밟고 일어설 발전도 없는 것이다.(38번)

이 글은 6개의 문장에서 무려 9개의 응집성 지표가 사용되었다. 매우 응집적인 글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다지 세련된 글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첫 문장의 “들춰낸다”라든지 네 번째 문장의 “수단” 같은 어휘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분명 Halliday & Hasan은 『영어의 응집성(Cohesion in English)』에서 응집성 지표가 많은 글, 그래서 응집성이 더 견고한 글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어에서도 접속부사나, 지시대명사가 많이 들어가면 응집적인 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세련된 표현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았던 53편의 학생 텍스트에서 응집성 지표는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표현의 성숙도나 세련도와 결부시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분석 대상은 봄 학기 초반에 1학년 학생들이 쓴 글이었다. 이들의 문장구성능력은 대체로 형편없었다. 응집성 지표의 수가 변별성의 기준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응집성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그것을 세련되게 다루는 방법은 몰랐다.

이는 비문의 비율이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문법적 오류는 큰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았다. 상위그룹 학생들의 평균비문비율은 .1529, 하위그룹 학생들의 평균비문비율은 .2267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t = -1.498, p > .05$ ).

3명의 평가자가 내린 총체적 점수와 분석적 점수의 비교에서도 문장 표현 능력이 평가에 중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3명의 평가자들은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동시에 행했다. 분석적 평가 항목 중 특히

<주제-2> 항목인 “주제가 적절한가?”와 <단락-1> 항목인 “문장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총체적 평가와 상당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문장-1>과 <문장-2>인 “비문, 긴 문장, 번역투 문장이 있는가?”와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 있는가?” 같은 항목에서는 총체적 점수 평가와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sup>17)</sup>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실험 연구의 과제가 논제 제시형의 문제로 요구된 답안이 있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논제가 제시하는 주제에 부합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논제에 적합한 주제에 더 좋은 점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논제에 대한 정답 유무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평가의 주된 요소가 되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논제에 부합되는 주제가 있었다면 문장이 조금 어눌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험 대상 학생들이 대학 1학년생이었고, 시험도 3월 초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평가의 지표에 다양한 문체, 수려한 표현, 정확한 문장 등은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 3. 독립 변수 X4, X5, X6(병렬적 진행, 순차적 진행, 확장된 병렬형 진행)

한편 우리 필자들은 “병렬적(parallel) 진행”과 “순차적(sequential) 진행”, 그리고 “확장된 병렬적(extended parallel) 진행”의 비율이 텍스트의 수준에 어

17) <표 5>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간의 상관계수(n=53)

|      |           |           |           |           |           |
|------|-----------|-----------|-----------|-----------|-----------|
| 평가항목 | 주제-1      | 주제-2      | 내용-1      | 내용-2      | 내용-3      |
| 상관계수 | 0.7846*** | 0.8296*** | 0.7878*** | 0.7430*** | 0.7975*** |

|      |           |           |           |           |           |
|------|-----------|-----------|-----------|-----------|-----------|
| 평가항목 | 구성-1      | 단락-1      | 단락-2      | 문장-1      | 문장-2      |
| 상관계수 | 0.7264*** | 0.8438*** | 0.7206*** | 0.5846*** | 0.5742*** |

\*\*\* p<.001

총점 대비 각 분석평가지표의 상관관계는 위와 같았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0.0000으로 통계적인 가치를 지닐 수는 없었다.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했다. Witte도 대학생을 상대로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의 것은 “읽고 나서 쓰기(reading to write)” 과제에 대한 것이었다. 즉, 읽기 텍스트를 요약 수정한 학생들의 글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의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정리하여 재진술할 때, 고득점 학생과 저득점 학생의 차이가 이 세 가지 진행 유형의 비율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상위그룹의 학생들일수록 화제가 한 두 개로 정리되는 경향을 띠고 있었고, 따라서 문장들 사이에 화제가 바뀌지 않는 병렬적 진행이 많았다. 반면 화제가 자주 바뀌는, 순차적 진행은 저득점의 명백한 징후였다.<sup>18)</sup>

그러나 우리의 학생들이 받은 과제는 텍스트에 대한 수정(Revision)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억과 망각”이라는 주제어에 대해서 자신만의 사례를 찾아 답안을 작성해야 했다. Witte의 분석대상 학생들이 주어진 텍스트를 주로 활용했다면, 우리의 분석대상이 되었던 대학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을 주로 사용해야만 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해야 했던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였다. 영어는 화제가 주로 문두에 주어로 나타나는 매우 완고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화제가 꼭 주어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분석은 두 가지 차이에 기반하여 행해졌다. 첫째, 우리의 분석대상 학생들은 읽기 텍스트를 단순히 요약·수정하는 수준이 아닌 이것을 활용해 주제부터 다시 설정해야 하는 다소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한국어 텍스트는 영어만큼 명쾌한 화제구조를 지니지 못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감안해야 했던 사실들이었다.

이런 차이에 근거하여, X4, X5, X6의 비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 X4(병렬적 진행)에 대한 상위 득점자와 하위 득점자의 득점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t=.1539$ ,  $p<.05$ ). 한편 X5(순차적 진행)와 X6(확장된 병렬적

18) Stephen Witte(1983), op.cit., pp.322, 330, 331.

진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필자들은 53편의 학생 텍스트에서 화제 진행과 관련된 유의미한 통계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유의미한 해석마저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X4, X5, X6를 별개의 변수로 분리하여 취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 셋의 조합 양태를 단일한 인자로 취급해야 한다. 어떠한 화제 진행 유형이 양적인 우세를 점한다고 하여 그 텍스트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질적인 조합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학생들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병렬적 진행, 순차적 진행, 확장된 병렬적 진행, 이 세 가지 화제 진행의 수와 비율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 유형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이다. X4, X5, X6이 아닌 이 셋의 비율이 함께 감안된 새로운 변수 XT가 고안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화제 진행 구조가 권장될 만한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글이었다. 대학에 갓 입학한 미숙한 필자들이 쓴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프라그마학이나 Hunt, Witte 등의 논의에 기대어 텍스트의 화제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필자들의 주된 작업이었으며, 학생들이 쓴 텍스트의 다양한 지표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였다.

우리 필자들은 대학 교육 현장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3명의 교수·강사에게 대학 1학년 학생이 쓴 53편의 텍스트의 평가를 의뢰했다. 그들은 주제, 내용, 구성, 단락, 문장 등 5개 범주의 10개 문항에 대한 분석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으며, 이것과는 별도로 총체적 평가도 행해야 했다.

이 두 개의 자료, 즉 평가자들의 채점 결과와 학생들의 텍스트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글이 높은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했다. 이는 다음의 질문, 즉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텍스트에 따라 평가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텍스트에서 우수한 글과 미숙한 글의 변별 자질은 무엇인지? 이런 자질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한 징후적 판단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였다.

실험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정보를 하나의 의미단위에 묶어낼 수 있는가가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화제를 얼마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화제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학생들의 지식의 양과 글쓰기 점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지표이다.

둘째, 응집성 지표는 좋은 점수를 받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이는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 지표이다. 앞서 말한 대로 Halliday & Hasan은 영어권은 우수한 글일수록 응집성 지표에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는 글쓰기 교육에서 접속 부사, 지시 대명사 등 응집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어와 달리 다양한 화제 진행의 방식 역시 텍스트 성적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 영어에서 화제 진행 방식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의미의 복잡성을 나타내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우리글에서는 이런 징표를 읽을 수 없었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화제 진행 방식에 대한 규정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번 실험 연구는 논제 제시형 과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텍스트의 주제는 한정되었으며, 문장 서술도 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번 실험의 경우 이런 성격의 글에서는 역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

명히 일깨워주었다. 그런데 만약 텍스트가 자유로운 수필이나 수려한 에세이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본다. 아마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실험 연구를 현실 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다양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는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었을 때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좋은 교육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본 논문은 2008. 6. 30. 투고되었으며, 2008. 7. 4. 심사가 시작되어 2008.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영화(1989), 「프라그마틱의 언어 이론=주제, 초주제, 주어 및 문단 구성에 대하여」, 『영어영문학』 제35권 2호, 315-320쪽.
- 반다이크(1980), 『텍스트학』, 아르케.
- 브링크(1992),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역락.
- 마경일(2001), 「정보구조에서의 주제의 기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7쪽.
- 신형기·정희모·김성수 외(2006),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글쓰기』, 사이언스북스, 20쪽
- 유재임(2001), 「T-unit analysis를 이용한 영작문 평가」, 『영어교육연구』 제22호.
- 유재임(2005), 「문장합성연습이 영작문의 문장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T-uni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근희(200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415-427쪽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Frances Christensen, "A Generative Rhetoric of the Paragraph,"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16 (1965), pp.144-156.

Halliday &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pp.4-6.

Kellogg W. Hunt(1965), *Grammatical Structures Written at Three Grade Levels*, Champaign, I L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David H. Karrfalt, "Generation of paragraphs and Larger Unit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17 (1966), pp.82-87.

Ellen W. Nold and Brent E. Davis, "The Discourse Matrix."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1 (1980), pp.141-152.

Stephen Witte(1983), Topical Structure and Revision : An Exploratory Stud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4, No. 3.

Witte & Faigley(1981), Coherence, Cohesion, and Writing Qualit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2, No. 2. pp.189-192.

## &lt;초록&gt;

##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

정희모 · 김성희

이 논문은 대학 신입생의 텍스트를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했다.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적 도구를 사용했다. 이론적 도구는 t-unit, 화제와 화제구조, 응집성 지표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대학교 신입생 53명의 글을 3명의 교수자가 총체적 평가 방법과 분석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점수를 평가했다. 그리고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텍스트의 문장 수, t-unit 수, 화제 수, 응집성 지표 수, 단어 수, 비문 수를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아홉 개의 분석지표를 마련했다. 그 지표는 X1 : t-unit 수, X2 : 문장 화제 수, X3 : 어휘 수/t-unit 수, X4 : 병렬적 화제 진행 수, X5 : 순차적 화제 진행 수, X6 : 확장된 병렬적 화제 진행 수, X7 : 응집성 지표의 수, X8 : 비문 수/전체 문장 수, X9 : t-unit 수/화제 수이다. 실험 연구는 전체 총점과 이런 요소의 상관 계수를 정하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지표 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집성 지표의 수(X7)”나 “비문 비율(X8)”은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우리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문장 표현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특징 때문에 응집성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화제진행 유형의 비율(X5, X6, X7)”도 평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했다. 병렬적 진행, 순차적 진행, 확장된 순차적 진행, 이 세 가지 중 어떤 게 바람직한 진행 형태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별개의 요소로 보고, 각각의 수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

가 나올 수 없었다. 화제 진행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양적인 비율보다는 질적인 조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했다.

결국 9개의 분석지표 중 2개에서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X3, 즉 “어휘 수 / t-unit 수”를 측정했더니 상위 그룹의 평균은 17.33, 하위그룹의 평균은 14.30이었다. 이것의 t값은 2.54, 유의확률은 .017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즉, “어휘 수 / t-unit 수”가 평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둘째, X9, 즉 “t-unit 수 / 화제 수”도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상위 집단의 평균이 3.51, 하위 집단의 평균이 2.40이었는데, t값은 2.194, 유의확률은 .03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글쓰기 평가를 좌우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했다. 어떤 화제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쓴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핵심어】** 능숙한 필자, 미숙한 필자, t-unit, 화제, 화제구조, 응집성 지표, 병렬적 진행, 순차적 진행, 확장된 병렬적 진행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College Student Writing

Jung, Hee-mo · Kim, Sung-h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xts which freshmen write. To do such, applying some concepts, we divide them into skillful writers' and immature writers'. These concepts are t-unit, topic, topical structure, cohesive ties, and etc.

Firstly, we gave 53 students' papers to three raters who are instructors in writing, and asked them use general and specific method of assessment. The score assigned by three raters were used to form two groups, one a "low score" group(N=15) and one a "high score" group (N=14). Then, we analyzed the texts by six features : number of t-units, sentence topics, cohesive ties, words, and asyntactic sentences. Using these raw data, we created nine variables for subsequent analysis : X1=number of t-units ; X2=number of sentence topics ; X3=number of words ; X4=percentage of t-units in parallel progression / -units ; X5=percentage of t-units in sequential progression / t-units ; X6=percentage of t-units in extended parallel progression ; X7=number of cohesive ties ; X8=number of asyntactic sentences / number of sentences ; X9=number of t-units / number of sentence topics. This experimental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summing up each scores and computing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total scores and each variables, executed through contrasting low score group's with high score group's.

The result of experiment is as follows ; first, the rate was influenced by neither "number of cohesive ties (X7)" nor "number of asyntactic sentences / number of sentences (X8)." It results from the facts that freshmen, object to analyze, had awful proficiency in writing and unlike

English, cohesive ties in Korean don't contribute to cohesion.

Also, the assessment was not influenced by "percentage of the three types of topical progression." As consequence of that, we don't conclude which progression is advisable. We should have considered qualitative compounding of three types of topical progression, not quantitative percentage of them.

Finally, meaningful conclusion came from only two variables of nine ones. First, an average X3(number of words/number of t-units) of "high score" group is 17.33, and one of "low score" group is 14.30( $t=2.54$ ,  $p=.017$ ).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f texts in X3 approach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5$ ). Second, X9 (number of t-unit/number of sentence topic) is one of the most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he high score and low score( $p<.05$ ). An average X9 of high score group is 3.51, and one of low score group is 2.40( $t=2.194$ ,  $p=.037$ ).

We, from these results, conclude that volume of knowledge may influences assessment of writing ; students who have much knowledge about a theme can get high marks.

**【Key words】** skillful writer, immature writer, t-unit, topic, topical structure, cohesive ties, parallel progression, sequential progression, extended parallel progression